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 거창한 말보다 소소한 행동이 훨씬 낫습니다.

2026.1.4.

요한일서 3:18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의 첫 주일,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창한 말보다 소소한 행동이 훨씬 낫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26년 첫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6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집트의 사라 로즈크 (Sarah Rozik) 감독이 만든 4분짜리 단편 영화, 'The Other Pair(또 하나의 짝)'입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 속에는 넓은 쪼리를 신은 가난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쪼리는 끈이 떨어져 자꾸만 벗겨집니다. 소년은 쪼리를 고쳐보려 애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신은 부잣집 소년이 기차를 타러 옵니다. 부잣집 소년은 깨끗한 옷에 멋진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은 그 구두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 기차에 오르던 부잣집 소년이 그만 구두 한 짝을 플랫폼 끝에 떨어뜨립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하기 시작했고, 소년은 구두를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난한 소년이 그 구두를 주워 기차를 쫓아갑니다. 구두를 돌려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며 손을 뻗지만, 기차는 점점 빨라집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리,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차 위에 있던 부잣집 소년이 신고 있던 나머지 구두 한 짝을 벗어 가난한 소년에게 냅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간디가 막 움직이는 기차에 올라타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기차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어 다시 주울 수 없었죠. 그러자 간디는 주저 없이 남은 신발 한 짝을 벗어 떨어진 신발 옆으로 던졌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이유를 묻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쪼는다면, 한 짝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소? 기왕이면 두 짝을 다 가져야 신을 수 있지 않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아깝다’ 생각하고, ‘나중에 도와줘야지’라고 미루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잣집 소년이 구두를 던진 그 찰나의 순간, 간디가 나머지 신발을 던진 그 즉각적인 행동, 그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2026년의 첫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행동하는 사랑’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자가 보이십니까? 도우 끝은 바삭하게 구워졌고, 그 위에는 붉은 토마토소스와 짭조름한 페퍼로니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저 녹아내리는 모짜렐라 치즈를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입 베어 물면 바삭,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치즈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이 꼴깍 넘어가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이 피자맛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목사님,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하실 겁니다. 아무리 제가 실감나게 설명하고, 여러분이 저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본들, 여러분의 위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림 속의 피자는 아무리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도, 단 한 사람의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맛을 볼 수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그림입니다. ‘행동’이 실제 음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 잔치’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말로는 천국을 몇 번이나 지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말은, 저 그림 속의 피자 같습니다. 보기는 좋으나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여기 아주 먹음직한 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굴을 드셔보신 분 계시죠? 아마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럼 굴을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굴 맛을 설명해 보십시오.

“새콤달콤해.” “상큼한 향이 나.” “씹으면 툭툭 알갱이가 씹혀.”

제가 아무리 시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첫사랑의 느낌 같은 맛”이라고 설명한들, 굴을 안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설명은 맛이 아닙니다. 표현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행동으로 가는 길을 여는 ‘전령’일 뿐입니다. 전령이 도착했으면, 이제 본대가 도착해야 전쟁이 끝나는 법입니다. 말을 했다면, 행동을 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굴이 참 맛있어”라고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굴을 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굴이 있어요. 드셔보십시오. 맛이 어떠십니까? 달콤하시죠? 이제야 비로소 이분은 이 굴 맛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먹여’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말로만 설명하려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18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랑해요’라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아이고, 저런... 배고프겠다. 날도 추운데 어떡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이렇게 말만 하고 돌려보낸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사랑한다면, 주머니를 털어 빵을 사주어야 합니다. 내 옷을 벗어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 엄마 아빠를 사랑하나요? 얼마나 사랑하나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랑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빠를 사랑한다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입고 벗은 옷과 양말을 뒤집어 놓지 않고 빨래통에 제대로 넣는 것, 그것이 엄마를 향한 사랑입니다. 엄마가 땀 흘려 차린 밥상 앞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않고, “엄마,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하며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현관문을 들어서면 남편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검댕이 묻은 것을 거울로 봤으면 씻어야 합니다. “어, 묻었네?”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해야지” 하고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결론: 작은 행동이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번지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수만 가지의 생각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작은 행동입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니크 효과(Zeigarnik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마치지 못한 일을 계속 기억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만 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뇌는 그 긴장을 풀고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즉, 행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행동입니다.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말만 하고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행동해서 얻을 수 있는 기적’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에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인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사랑의 값은 ‘0’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보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행동이 낫습니다. “언젠가 선교를 가겠다”는 다짐보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는 행동이 훨씬 낫습니다. 거창한 말보다 소소한 행동이 훨씬 낫습니다. 소소한 행동이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며 우리도 ‘행동’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하십시오. 하이파이브를 하셔도 좋고, 껍스럽지 않다면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느껴지십니까? 말로만 할 때와는 다른 온기가 느껴지시죠?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구체적이고 소소한 행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